

전남 서부권

녹물 똑똑 300m 비막이 시설 너털너털 방치 부끄러운 '국제 무역 완도항'

개·보수 시급

국제 무역항인 완도항에 승객들이 이용하는 비막이·눈막이 시설이 녹이 슬고 찢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완도항은 완도~제주간을 오가는 '블루나래호'와 '한일 카훼리호'를 비롯해 청산도행 카훼리 등이 운항하는 곳이 하루 수천~수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선박 승·하선 시에 이용하는 300m길이의 비막이·눈막이 시설의 경우 파란색 천장비닐이 찢어져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철 보호대 역시 녹이 심하게 슬어 자칫 관광객들의 옷에 녹물이 묻을 수 있는 실정이다.

완도항은 전국에서 제주까지 가장 빠른 1시간 40분에 주파하는 '블루나래호'와 '한일 카훼리'가 운항하고 있



완도항내 선박 승·하선시 이용하는 비막이 시설이 찢겨지고, 철 보호대가 녹슨채 방치돼 보수작업이 시급하다.

어 여객 이용객들이 크게 물리고 있다.

특히 청산도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도 널리 알려져 주말이면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만 하루 6000여명에 달한다.

더욱이 항만관리 시설을 맡고 있는 각 기관들이 완도항에 위치하고 있는

에도 불구하고 승객 편의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관광객들은 "완도항 개·보수 예산이 헛돌고 있다"며 "완도항내 승객 편의시설이 시급히 보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이와 함께 군은 김철주 무안군수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민음행정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업 핵심산업 육성·한우 특구단지 조성 등 '45대 무안군수 45대 공약'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다음달 공약사항 보고대회를 열고 적극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무안봉사와 무한진정으로 감동행정을 펼쳐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무안을 만드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대성지구 주거개선사업

목포시의회 심의 통과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LH공사는 최근 도로를 줄이고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목포시에 제출, 목포시의회 의결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안대로 반영할 것과 단지내 중앙 보행자 도로를 보차 가능 하도로 개설하고, 사유여부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성동 공동주택은 기존 22층에서 25층으로 3개층 증축이 가능해져 분양아파트 1191세대가 1348세대(309세대 증가)로 늘어나고, 폭 15m의 도로 435m는 282m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국민 임대아파트를 540세대에서 388세대로 줄이는 안은 당초대로 추진되게 됐다.

이로 인해 LH공사 옆은 이익은 6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LH공사 관계자는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40% 이상 축소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 목포에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조건 분양 아파트를 늘려 이익 창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손실폭을 줄이고 올해 반드시 착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분양세대의 이득금은 주민과 시민에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해남 고구마 가공하면 가치 10배로"

가공산업 육성사업 경과보고회

해남 고구마가 가공식품으로 변신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 고구마식품(주)대표 김영진(안)은 최근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해남고구마 가공산업 육성사업 경과보고회에서 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공장 신축 관련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고구마 페이스트·고구마 말랭이 등 간편하게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 3종의 고구마 가공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고구마 가치는 생과로 판매했을 때 kg당 1500원이었으나, 가공판매할 경우 kg당 최고 1만 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어 1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 고구마식품(주)는 모든 가공품을 HACCP 인증을 받은 설비와 공장에서 생산해냄으로써 해남고구마의 건강이미지와 부합시

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공공장은 대지 1650㎡에, 605㎡ 규모로 1일 1.4t의 고구마를 가공·생산할 수 있다.

이로써 고구마 생산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B급 고구마가 가공용으로 연간 250여t(1차년도 계획) 처리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 고구마식품(주)는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함께 홍보마케팅 전략을 지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진돗개 묘기 보러 오세요

진도군 진돗개사업소 조련사들이 최근 고군면 오산초등학교 향동분교에서 진돗개 묘기 연습을 시키고 있다. 진도군은 올해 진돗개의 천연기념물 지정 50주년과 지정번호(제53호)의 의미를 담아 5월 3일을 '진돗개의 날'로 정하고 진돗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진돗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진도=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45대 공약 꼭 지키겠습니다"

무안군 군정 구호 선포식

무안군은 최근 봉정 현관 앞에서 새로운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비전인 군정 구호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서 군 공직자들은 군정구호인 '군민위한 감동행정 잘사는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새로운 마음

가짐과 각오를 다지고, 더욱 잘살고 행복한 무안을 건설하는데 뜻을 모았다.

군정구호는 공직자와군민 모두에게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알리고자 무안군 산하 전 행정기관 청사 정면에 상위간판으로 설치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전북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정읍시의회는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읍시의회는 최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원희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근 정책개발과 의원 발의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으로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시의원 연구단체는 5명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며,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회의 및 의정 운영경비로만 쓰이던 의정활동비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도 지원하도록 해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규칙을 발의한 박원희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각자의 위원회 활동과 개인활동에만 의존해왔다"며 "앞으로 의원 상호간 협력과 의회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보다 더 활발한 정책대안과 입법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완주에 로컬푸드 직매장 문열어

'농촌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주군 웅진면에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김완주 지사와 임정엽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웅진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했다.

직매장은 5억7000만원을 들여 웅진농협 1층 260㎡에 문을 열었다. 완주 군내 130여 농가별 판매대를 지정하고 농민 스스로 가격을 결정·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완주군은 참여 농가를 계속해서 확

대해 농민의 소득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판매되는 신선채소와 일반 가공 농산물은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지켜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웅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은 농촌 활로 모색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김제시 '수질오염 총량초과' 지역 해제

김제시가 '수질오염 총량초과' 지역에서 최근 해제돼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김제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삭감자료를 제출해 1차로 하루 343㎏을 삭감량을 인정받는데 이어 2차로 액

비뱅크 모니터링 실시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추가 삭감사업을 발굴해 전주 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를 방문한 결과 하루 430.3㎏의 삭감량을 인정받았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외국인 직접투자 43% 늘었다

제조업 위주 4월 8700만 달러...3일 지진후 증가

전북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글로벌 경제위기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전년동기(6100만 달러) 대비 42.6% 증가한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투자를 보면 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 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국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현재 FDI 실적은 최근 세계 경제현황에 견주어 불태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등에도 불구

하고 유럽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일본의 대지진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형태별로는 증액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재투자하는 증액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식품과 자동차부품·화학·비철금속 등 대부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는 서비스업 투자분야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는 외국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한글·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국 언어로 외국투자기업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기업

수 수요에 부응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중점기업 타킷팅 ▲국내외 기업설명회 개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TIA(일본 전담팀) 등과 네트워크 강화 ▲FTA 등을 활용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경부가 주관하는 '상품화 지원 사업'에 김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선정돼 외투자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일본 등 외국기업들의 잇단 방문으로 세만금 지역이 투자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118년전 동학운동 속으로...

재연하는 행사가 열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촉발시킨 무장기포(茂長起布) 118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농민군의 무혈입성을

(고창군 제공)

단신

전북도 공무원 국내의 연수, 공개 입찰로

전북도는 공무원의 국내의 연수와 관련, 여행사의 로비를 막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선정기준은 국외연수의 경우 동일목적의 연수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

면 공개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토록 했다.국내 단체연수의 경우도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일부 시군의회에서 도입한 공개경쟁 방식의 여행사 선정이 한계가 있어 '나라장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군산시-대림 C&S 투자 협약

군산시는 대림C&S(주)(대표 송범)와 최근 중량 구조물·해양플랜트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에 따라 대림C&S는 군산 2국가산단내 중부발전부지 18만9920㎡(5만7450평)에 2015

년까지 1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0여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다. 대림C&S(주)는 1단계로 오는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30억원을 투자하고 55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hnews@

김제경찰 검찰 송치건수 90% 줄어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올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 송치서류 심사담당관제'를 실시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송치건수 521건 가운데 검찰의 재지휘 건수 6건(90.6%)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 555건을 송치 64건에 대해 재지휘를 받은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며 "수사경력에 풍부하고 수사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미비점을 보완·검증하는 신중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공무원 서울 출장에 KTX 이용

남원시 공무원들이 서울 중앙부처 출장시에 남원역을 경유하는 KTX를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5월 1일부터 남원역 KTX가 5회 정차함으로써 이용하기에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5월1일부터 변경되는 KTX 남원역 정차시간은 ▲상행 6:14,

10:52, 13:46, 16:27, 19:59 ▲하행 8:12, 10:40, 13:06, 16:51, 22:17분으로 왕복 5회 운행된다. 남원에서 용산까지 2시간 35분이 소요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이달말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hnews@